

졸업특집

대학생활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은?

2012 학년	2013 학년	2014 학년
1위 폭넓은 대인관계 경험	1위 폭넓은 대인관계 경험	1위 폭넓은 대인관계 경험
2위 전공공부	2위 전공공부	2위 전공공부
3위 동아리 및 취미활동	3위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외국체험	3위 이성교제

교수님께 바라는 점?

- 1위 전공지식의 깊이 있는 지도
- 2위 친밀한 사제관계
- 3위 대학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조언

대학생활 중 가장 걱정스러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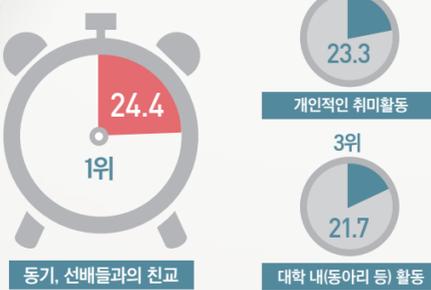


2012	2013	2014
진로(취업) 문제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음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학생활 중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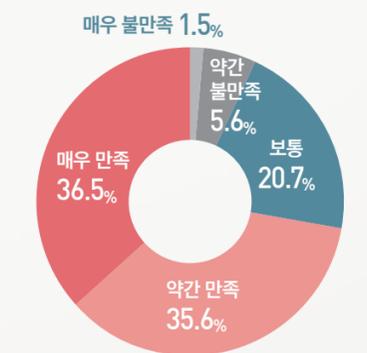
# 당신의 대학생활은 어떠셨나요?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던 새벽, 동아리 공연을 준비한다고 시간도 까먹었던 날, 첫 연애가 끝나고 평평 올던 겨울밤. 각자가 대학을 떠나며 안고 가는 기억들은 다를 것이며, 희미해진 기억들도 있을 것이다. 가장 까마득한 당신의 1학년 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입생의 대학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중 2012학년부터 2014학년까지의 실태결과를 정리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입학 했던 그때의 나를 떠올려 보시라.

직업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입학 후 본교 만족도



Newsmaker

SCI 저널 논문 게재  
방유빈(응용화학 2012)



## “차근차근 밟아 오니 어느새 여기까지”

신정인 기자 sjj0201@khu.ac.kr

학사모를 쓰는 방유빈(응용화학 2012) 씨의 졸업논문이 SCI(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방 씨의 지도교수인 김용호(응용화학) 교수는 “학부생이 재학 중 SCI 논문의 공동저자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주저자로 SCI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3학년 여름방학부터 연구를 시작한 방 씨는 1년의 연구를 거쳐 지난해 11월 논문을 발표했다. 방 씨의 졸업논문은 ‘Direct dynamics calculations of multiple proton transfer through hydrogen-bonded wire and the role of micro-solvation in ClONO<sub>2</sub> + H<sub>2</sub>O → HNO<sub>3</sub> + HOCl reactions’로, 남극의 불철연 10월 경 극지방 오존층이 파괴돼 오존홀이 생기는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성충권 교수가 봄에 빛을 받으면 염소라디칼이 만들어지는데, 이 염소라디칼이 극지방의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방 씨는 염소 표면의 물 분자 개수에 따라 화학반응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화학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했다.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시차 때문에 교수님께서 한국시간에 맞춰 연락주시는 모습을 보고 거의 잠을 안 주무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논문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갈 즈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로 중요한 데이터 하나가 잘못 입력됐다는 것을 알아차린 아찔한 기억도 있다. “다른 데이터들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값이라 연구내용 전체가 틀어질 수 있었는데 교수님은 미국에 계신데다 제출기한도 임박해 정말 막막했다”며 “며칠 동안 다시 데이터를 고쳐 결국에는 잘 마무리했지만 그때가 가장 큰 고비였던 것 같다”라고 떠올렸다.

### “설부른 것보다는 천천히 가는게 필요해”

많은 대학생이 전공에 대한 연구보다 인턴이나 교환학생, 어학 점수 취득 등 향후 진로와 관련한 활동에 집중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방 씨 역시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이 불안할 때도 있었다.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방 씨는 “방학 때 취업과 관련된 인턴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분야로 취직을 해야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이 여러 활동을 하기보다는 연구를 하면서 천천히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 “학부생 SCI 논문 주저자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학부생 신분으로 긴 시간 동안 한 주제로 연구를 이어가고 논문을 완성한 쉽지 않은 업적에 대해 방 씨는 “연구 주제를 정할 때부터 같은 연구실 선배가 썼던 논문을 선행으로 삼는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특히 “전공수업에서 만나 지도교수를 맡아주신 김용호 교수님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방 씨는 “처음엔 인공기능 같아 조금 무섭기도 했던 교수님이었지만 학생들의 질문에 정성껏 답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 교수님과 함께 한다면 배울 점이 많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고 전했다. “한창 논문을 준비할 때, 교수님이 연구원으로 미국에 계신 상황이라 매주 한 번 화상 미팅으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았고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SCI 논문을 게재하면 학술우수장학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시 자신의 성과를 마음껏 보여줄 수도 있다. 방 씨 역시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 제약회사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들어가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매 순간 주어진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욕심과 책임감이 생긴 게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도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누구나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클 텐데,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오늘도 실험실에서 열심히 학생들 모두 응원해주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 한 번 경희는 영원히 경희, 혜택에는 뭐가 있을까

##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 참여, 도서관 이용에 경희의료원 할인까지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오늘 졸업하는 이들은 모두 각자의 대학 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대학이라는 틀을 벗어나 사회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졸업자를 위해 학교는 여러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그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졸업생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이슈는 취업일 것이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는 졸업 동문에게도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캠퍼스(서울캠) 미래인재센터는 교내·외 취업에 대한 정보, 청년 취업 맞춤형 컨

설팅을 제공한다. 취업 특강 및 관련 교육, 인턴십 및 현장 실습 지원도 준비돼있다. 커뮤니티를 통한 로스쿨·공기업 등에 대한 소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미래인재센터 역시 교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 상담 및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졸업 동문은 자신이 사용하던 종합정보시스템 계정을 이용해 미래인재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도 졸업생에게 열려있다.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졸

업 동문은 2월 14일부터 각 도서관 창구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도서관 한 번에 최대 3권, 14일까지 대출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양 캠퍼스 모두 본교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납입 영수증 또는 진학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3월 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열람실 사용과 장소 예약 신청 등의 도서관 서비스 역시 재학생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외 전자책 및 전자 지원 이용은 출판사와의 계약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원문 복사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총동문회는 우리학교의 행사와 사업을 지원하고, 재학생 장학사업,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사업 및 학사관련 건의 등 학교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총동문회는 회비를 납부하는 동문에게 ‘동문카드’를 발급한다. 연회비 3만원 혹은 평생회비 30만원으로 총동문회 가입이 가능하다. 회비를 납부한 동문에게는 동문카드를 무료로 발급한다. 이 카드를 총동문회와 협정을 맺은 진료기관에 제시하면 의료보험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 진료비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총동문회와 협정을 맺은 의료기관은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동문카드의 발급 신청서도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하다. 동문들이 경영하는 양·한방 병원, 치과병원과 의원급의 각급 진료기관은 물론 동문 경영 사업체와도 동문카드를 통한 동문

우대사업 협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동문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경희의료원 서관 1층에 위치한 700번 진료협력센터에 경희가족으로 등록하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부모, 친조부모, 배우자, 자녀, 장인장모)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 10% 할인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종합건강검진 기본검진 30%, 정밀검진 10% 감면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를 빈소와 안치실에 한해 40~50% 할인(상조회사 가입 시 제외) 혜택이다.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졸업증명서, 학생증, 동문카드 중 1개를 준비하면 된다. 또한 직계가족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와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 공부와 취업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겨가는 현명한 경희 동문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기를 바란다.